모바일 카오스

(막3:7~12)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9.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10.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11.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2.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모바일 카오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모바일 카오스'
모바일이란 뜻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의' 이런 뜻입니다.
카오스는 역시 잘 아시는 대로 창조 이전의 원시상태, 창조 이전의 혼돈상태를 지칭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 창조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오스' 혼돈을 뜻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창조 이전에 혼돈과 흑암과 깊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카오스입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에도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선민의 삶의 터전인 복지, 약속의 땅이 황폐하게 될 상태를 내다보면서 표현한 단어가 예레미야 4장 23절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더라' 흑암이라는 얘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얘기를 또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카오스가 도대체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을 때,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따랐고 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볼 때 남쪽, 그리고 그 다음에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 이건 갈릴리를 기준으로 볼 때 동쪽,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건 북서쪽. 그러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왔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구름 때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현장, 갈릴리라는 곳은 그 당시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로마의 영향권과 유대 지도자들의 영향권이 미약한 영향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 때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에서 예수님 사역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역하시는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온다고 하는, 그 몰려오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단락입니다.

그럼 마가는 왜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온다는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가짐, 사역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철학,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몰려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가버나움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몰려왔을 때도, 예수님이 기도 끝에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버리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도, 정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 보내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랬으니까 이 사건은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가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졌다는 것에 초점을 둔 이야기도 아닙니다.

구름떼처럼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가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모바일 카오스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바일 카오스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6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60억의 인구로 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바일 카오스에요.
60억 개의 카오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부장님을 만나면 맨 날 책상에 앉아서 결재하는 모습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단면이에요.
부장님이라고 하는 그 분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넓고 넓은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삶의 영역이 다 카오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한 개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개인은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현장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삶의 현장이 있고, 그 삶의 현장 전체가 카오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동편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는 그 때에 그것을 보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경험한 뒤에, 그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자료를 보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료를 통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을 떠올렸을 때, 마가에게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카오스였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마가가 이렇게 보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바로 앞에,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회당에서 고치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것을 행하는 것과 악한 것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참 의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작업의 핵심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것은 창조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창조의 내용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걸 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놓고 이러한 질문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안식일을 회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던 기운이, 공적이고 우주적인 창조를 하시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기운이, 이제는 개인에게 스며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마가는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은 단순히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 마른 사람을 둘러싼 치유의 이야기 속에, 이 천국에 연관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마가는 보았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에 연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다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그 옛날 태초에 이 세상을 혼돈 속에서, 흑암 속에서 공허 속에서 창조해 내시던 것과 같이 창조 작업이 일어날 텐데, 그 창조 작업이 일어나게 될 현장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향하여 구름떼같이 몰려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이고, 왜 그들에게서 창조 작업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들의 삶이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초의 창조 장면은 아니더라도, 예레미야가 죄악으로 관영된 선민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바벨론에 의해 심판 받은 그 복지의 땅, 선민이 살도록 되어있는 언약의 땅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가득 차 있다고 본 것처럼, 마가가 지금 천국을 갖고 오신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있는 구름떼같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이면에, 그 사람이 이제까지 행복하기를 원했고, 잘 살기를 원했고, 멋지게 살기를 원했던 그 삶의 현장 전체가 다 공허로 가득 차 있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카오스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통하여 창조사역이 일어나게 될 장소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인간론입니다.
사람을 카오스의 현장으로 보는 거예요, 모바일 카오스로 보는 겁니다.

자! 이 모바일 카오스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이 카오스가 왜 일어나게 된 겁니까?
이유가 명백해요. 이 카오스가 빚어지게 된 것은, 인간의 마음이 성령님께 묶여서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행복해 져야 될 것이 육체에 묶여서 이 세상에서 행복거리를 찾게 되면서, 마음이 육체에 묶이는 그 순간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고, 거기서부터 혼돈이 시작 된 것입니다.
이 혼돈이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육체의 나'가 된 상태에서, 행복을 구축하려고 하면 할수록 왜곡되고 흑암이 깊어져서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 차고…
공허! 공허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실다운 것입니다.
실다운 것, 그것이 참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카오스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카오스를 일단 보시면 가만 놔두시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룬 카오스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질서를 잡으시면 되지 않느냐?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천지창조 때처럼 창조해 나가시면 되지 않느냐?
절대 못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의 현장에서 떠돌고 있는 한, 유령이 구천을 떠돌듯이 내 마음이 육체에 묶여서 이 세상을 떠돌면서 이 세상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분 얘기 아시죠?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사촌오빠와 그 오빠의 친구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 때에 임신을 하게 돼 미혼모가 됩니다.

그 아기가 곧바로 또 죽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됩니다.

한마디로 만신창이의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방송인이 됐는데, 미국에서 2200만 명이 오프라 윈프리가 나오는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고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인을 꿈꾸는 모든 젊은이들의 멘토예요.

정말 꾸겨진 인생에서 회복이 돼서 질서 잡힌 삶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는 과연 그가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입니다,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역시 혼돈이에요 혼돈.

자! 이제 말씀 드립니다. 마가가 지금 선포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삶이 어느 정도로 꾸겨졌습니까? 오프라 윈프리의 어린 시절만큼 꾸겨졌습니까?

당신의 삶이 지금 어느 정도로 망가졌습니까? 카드에서 빚을 내서 돌려 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에서 빌려서 이 카드 빚 막고, 이 카드 빚 또 저쪽 카드에서 돌려 막고, 신용 불량자가 되었습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당신이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부도를 당했습니까? 빚쟁이들에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아이를 데리고 조기유학을 갔는데 실패해 버렸습니다.

아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위기 앞에서 엄마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완전히 카오스가 되어 버렸어요, 혼돈과 흑암과 이 공허가 몰려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얻은 게 아무것도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망가졌던지, 어떻게 혼돈이 이루어졌던지, 어떻게 이룬 것이 없이 공허하던지, 어떻게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에 먹구름 밑에서 흑암 가운데 거하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단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마음이 그 카오스가 이루어진 현장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빠져 나가라는 겁니다.
수영장에서, 친구의 수영복 바지를 확 벗긴 다음, 짓궂은 아이들이 저~쪽으로 잠수해서 불쑥 나타나는 것처럼, 일은 내가 다 벌려놨어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카오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 삶의 현장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십자가 붙잡고 이제 그 보혈로 내 마음이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과 뭉쳐서 뒹굴었으니까, 더럽혀진 그 마음에 깨끗함을 입고, 주님의 장사지냄과 죽으심과 부활을 따라서 연합해서 승천까지 해서,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늘나라로 가 버리라는 거예요, 빠져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겨진 카오스는, 이제부터 내 마음이 빠져나간 내 삶의 카오스의 현장은, 마가가 선언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 내 삶에 임할 하나님의 전공과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공과목이에요.

태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질서 잡으려는 그 어떤 마음도 존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개입하면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차 있는 이유는, 그 속에서 내 마음이 질서를 잡아보겠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 혼돈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마음이 빠져나가지 않은 사람, '어? 어떤 사람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바벨탑을 생각하시면 되요.
바벨탑을 하늘에 닿기까지 쌓아 올리자고 말했을 때에, 인류 중에 최고의 건축가들이 설계를 했을 것이고 최고의 목수들이 모여서 건축을 해 나갔을 것입니다.
확고하고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 나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범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 엘리트 코스만을 달렸습니다, 사람이 반듯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모릅니다, 그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공허한 삶, 아무것도 건질게 없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그것만이 내 마음에 걸려들 수 있는 것인

데, 내가 좋다고 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음을 마가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카오스가 심각하고 넓고 깊은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로 끈질기게 그 카오스의 속에서 내 마음이 남아서, 아직도 내가 질서를 잡겠다고 헤매고 있느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만큼 망가졌던지 간에, 십자가 붙잡고 빠져 나가시면,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질서와 생명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 나가실 것이에요, 그렇게 해 나가실 것이에요.
여기에 귀신에 대한 경고가 다시 한 번 주어집니다.
귀신의 멍군을 경고하는 거예요, 귀신의 멍군.
하나님의 아들 됨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카오스의 삶의 현장을 빠져 나가지 않고, 몰래 숨어서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는 것, 이거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예 행복과 기쁨을 여기서 구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 붙잡고 빠져 나가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기쁠 수 있는 조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운명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다! 이게 운명이고 이게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겁니다.
'내 팔자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팔자다, 운명이다 그러므로 그분과 기뻐하지 못하면 내겐 기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가실 것입니다.

모바일 카오스, 이제는 폐지시켜 버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름떼처럼 주님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며,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마가는 모바일 카오스를 봅니다.

나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가족을 볼 때 우리도 이 관점을 잃지 않게 해 주셔서, 어떡하던지 우리의 과제가 카오스의 현장을 내 힘으로 질서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잡고 빠져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전공인 이 카오스를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